

전주시, 경로당 안전점검 추진

전주시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경로당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과 함께 노숙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하고 겨울나기를 돕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시는 겨울철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23일까지 전주시역 600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주시에는 현재 594개(완산구 304, 덕진구 290) 경로당이 등록되었으며, 총 2만2811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시는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경로당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

유관기관 협조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도 전개

를 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 축대 및 건물붕괴, 지붕누수, 주방 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 △경로당 난방기 고장 여부 및 노후 전기·가스시설 상태 확인 △소화기 비치 여부 등 화재예방 준비상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난방기·보일러 고장, 시설불량 등이 파악되면 즉시 정비 또는 기능을 보강하고, 동 주민센터 직원과 통장, 자원단체 회원 등을 적극 활용해 경로당 운영 지원방안을 강구기로 했다.

또한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기·도시가스의 안전한 사용방법과

한파 대비 건강관리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혹한기를 맞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추운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중앙구청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거리노숙인 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현장순찰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발굴된 노숙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푸드마켓 등과 연계해 난방과 먹거리, 생필품 등을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하는

한편, 자활프로그램 및 주거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경찰과 소방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응급상황시 긴급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 동절기 노숙인 관리 및 보호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을 앞두고 사회 안전망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갈 곳이 없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 알콜중독자, 장애인 등 폭설시 부상을 당하거나 동절기 한파로 인해 동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시민들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민께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대병원-지엘팜텍 신약개발 '맞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은 지엘팜텍과 신약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엘팜텍(주)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개량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의약품 개발 업체로 이번 협약은 신약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에서는 지엘팜텍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와 전북대병원의 의료 연구 인력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임상 및 기초의학의 향상과 이에 따른 연구 성과를 산업과 접목시

켜 글로벌 사업화 성과를 이루기로 했다.

양기관은 이를 위해 글로벌 신약개발과 의료기기개발을 위해 양기관의 장비와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강명재 병원장은 “이번 지엘팜텍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교류와 연구발전을 도모하고 우의를 다지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양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성과를 산업과 접목시켜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과 의료기기개발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하라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6 전국상인대회에 참석한 상인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임차상인 보호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선산 침입 700만원 상당 향아리 훔친 50대 붙잡아

완주경찰서가 지난 11일 남의 선산에 멋대로 침입해 고가의 향아리를 훔친 김모씨(53, 남)를 형사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8일 완주군 구이면 소재의 한 선산에 침입해 피해자가 보관중이던 700만원 상당의 향아리 10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왜 민원 신경 안써줘” 이장 살해 40대 징역 9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1일 자신의 민원을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을 이장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1시3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마을이장 A(51)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자신이 신축한 농산물 자운창고에 대한 민원에 대해 제대로 신경을 제대로 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던진 뚝배기에 머리를 맞자 화끈하게 흥분을 휩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해자가 던진 뚝배기에 머리를 맞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합리적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복지부, 낙태의사 처벌 강화 무산... 도로 1개월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수술(낙태)을 포함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강화하려다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철회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23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관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낙태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개정안에 규정했던 낙태를 포함한 8종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을 6종으로 줄이고, 일부는 처벌 수위를 낮췄다.

진료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해 발급 이하의 형을 받았을 때는 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로 최종 확정했다.

허가 받지 않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고의·과실 투약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별로 1차 1개월, 2차 2개월 등으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했다. 기타 의료인직업윤리를 위반한 경우

도 내용에 따라 경중을 따져 1~6개월 자격정지를 처분기로 했다. 이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감안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2개월 이내로 강화하는 내용을 유지했다.

전주 꽃 도시로 거듭난다

시, 한옥마을서 '수목관리의 날 행사' 진행

전주시민들이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에 꽃과 나무로 가득한 관광명소로 바뀌어가고 있다.

전주시는 11일 전주향교문화관과 전주전통문화관, 중앙초등학교, 최명희문학관, 한옥마을 살개천 등 10여 개소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2016년 전주 시 수목관리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치원생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 150여명이 참여해 한옥마을 주변에 우리의 전통수종인 오얏나무와 살구나무를, 살개천에는 참포, 나리꽃 등 전통 꽃을 심었다.

특히 코끼리유치원 원생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우리 꽃을 심는 체험 활동을 통해 우리 꽃의 소중함을 느끼는 유익한 시간을 함께 했다.

이와함께 이날 최명희문학관에는故 최명희 선생의 대표소설인 '혼불'에 나오는 살구와 매화나무가 심어졌으며, 서서학동 주민들은 보광재에 단풍나무를 식재했다. 또, 중앙동 주민들은 태평문화공원에 감나무를, 송천2동 주민들은 재방에 회양목을 식재했다.

이밖에도 이날 행사에는 각 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주민들이 참여해 봄꽃

과 야생화 씨앗을 꽃밭에 파종하는 등 전주시 전역에서 나무 식재와 심은 나무를 보살피는 일에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시는 이번 행사가 모두 함께 가꾸어나갈 숲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생태도시 푸른 전주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신 푸른도시조성과장은 “수목관리의 날을 운영해 가을철 나무심기도 장려해나갈 계획이다”며 “내년 봄에는 전주시 도심 어디서든 야생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정치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

정치후원금이란? 정당 및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탁금과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후원금이란?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치후원금센터를 검색하세요

검색방법

- 신용카드 결제
-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휴대폰 요금 결제
- 간편 결제: Kakao Pay, PAYCO, Paynow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하기

정치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

깨끗한 정치문화 만들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10만원 초과 시 1천원

전액 세액공제

1천억 원